# 중국의 고건축을 보는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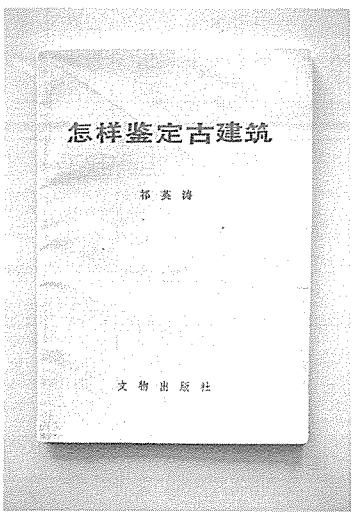
## The Ancient Architect of Chinese

필자 : 祁英濤 / 中國文化部文物保護科學技術研究所高級工程師
역자 : 韓東洙 / 國立臺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所
Translation by Han, Tong—Soo

### 역자서문

이 글의 원제는 《고건축을 어떻게 감정하는가》로서 북경의 문물출판사가 1981년 초판을 간행한 이후 1986년까지 재판을 거듭하여 3판까지 간행되었고 동일한 내용이 1984년 대만의 명문서국에서 간행된 《中國建築史論文選集》 第1册 등에도 수록이 되어 있다. 비록 출판된 지 10여년이 지난 해묵은 원고이며, 원문 자체의 분량도 64페이지에 불과한 소책자이기는 하지만 중국건축의 시대적인 특징을 요점으로 이해하고 건축물을 조사, 연구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데에는 더 없이 좋은 내용이라 여겨진다.

필자 기영도(祁英濤)는 1947년 국립북양대학공학원(國立北洋大學工學院) 건축공정계(建築工程系)를 졸업하고, 현재 중국 문화부 문물보호과학기술연구소 고급공정사(高級工程師)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저작으로는 〈하북 신성(新城) 개선사 대전(開善寺大殿)〉, 〈소림사(少林寺) 초조암 대전(初祖庵大殿)에 관한 초보적인 분석〉,




〈중국고대벽화의 해체와 수리복원작업〉, 〈고대건축 연대감정의 몇가지 문제〉 등의 논문이 있다.

역자가 이 책을 처음 대하게 된 것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에 근무하던 1987년 여름 본원의 장서각의 지하서가에서였다. 그 당시에는 내용의 간략함에 별다른 생각없이 무심코 지나쳤으나 대만으로 건너와 공부를 계속하며, 중국건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축적된 이후, 우연한 기회에 홍콩의 삼연서국을 통하여 이 책을 다시 구입하여 보니 중국건축을 처음 대하는 초보자 뿐 만 아니라 고건축을 실지조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크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설서임을 알 수 있었다. 요즈음 우리 건축계에는 중국건축을 비롯한 동양건축에 대한 연구의 열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여 초보자나 중국건축에 흥미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설서는 물론 간략하고 체계적인 서적도 매우 부족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자유로운 독해의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역자는 중국고건축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문장들을 번역하여 소개하기로 작정하고 그간 기회가 닿는 대로 몇몇 건축잡지에 이러한 문장들을 소개한 바 있다. 이 글도 역시 동일한 취지하에 소개하는 것으로 모쪼록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아울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 임의로 약간의 주석을 달았으며, 《중국고건축》, 《중국미술전집》, 《중국고건축의 미》 등 세 권의 도록 및 《중국대백과사전(건축, 성시계획편)》으로부터 발췌한 사진 도판을 첨가하였다. 중국고건축에 관하여 시각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원하는 독자들은 이미 시중에 발간되어 있는 《중국고건축》이란 화보집을 참고한다면 중국건축의 발전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모두 3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목 차)

〈제1회〉

**＊中國古代歷史年代表**
**＊宋式, 淸式斗拱部分名稱圖**

**1. 두가지의 조사, 두가지의 비교, 연대의 확정**
**(1) 두가지의 조사**
**① 건축물의 현재 구조상황 조사**
**② 관련된 문자기록의 조사**
**(2) 두가지의 비교**
**① 현존하는 구조와 이미 연대를 알고 있는 건축물의 법식 비교**
**② 현존하는 구조와 문헌자료의 비교**
**(3) 연대의 확정**

〈제2회〉

2. 각 시대의 건축 특징
(1) 당대(唐代)—청대(淸代)의 목조건축특징
① 평 면
② 양가구조(梁架構造)
③ 양가구조 중 몇몇 부재들의 변천
④ 두공(斗拱)의 양식
⑤ 두공에서 몇 가지 부재의 변천

〈제3회〉

(2) 장수(裝修), 지붕, 채화(彩畵)의 발전
① 문과 창
② 난간(欄干)
③ 와수건(瓦獸件)
④ 채 화
(3) 각 시대의 전석건축(塼石建築)의 특징
① 전석장(塼石牆)
② 아치(Arch)
③ 전탑과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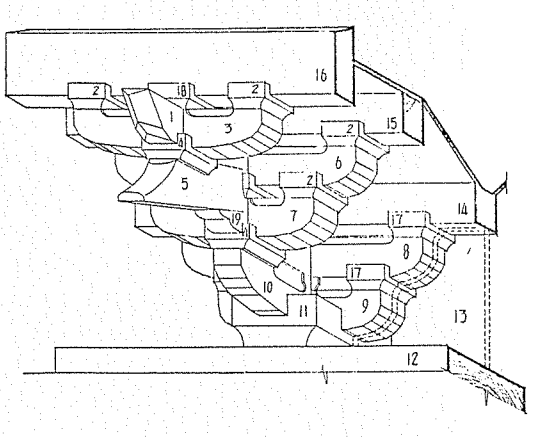
**＊中國古代歷史年代表**

| | | | |
|---|---|---|---|
| 舊石器時代 | | | 約60萬年至1萬年前 |
| 新石器時代 | | | 約1萬年至4000年前 |
| 夏 | | | 約前21世紀-16世紀 |
| 商 | | | 約前16世紀-11世紀 |
| 西 周 | | | 前11世紀-前771年 |
| 東周 | 春 秋 | | 前770年-前476年 |
| | 戰 國 | | 前475年-前221年 |
| 秦 | | | 前221年-前207年 |
| 漢 | 西 漢 | | 前206年-公元23年 |
| | 東 漢 | | 25年-220年 |
| 三國 | 魏 | | 220年-265年 |
| | 蜀 | | 221年-263年 |
| | 吳 | | 222年-280年 |
| 西晉 | | | 265年-316年 |
| 東晉十六國 | 東 晉 | | 317年-420年 |
| | 十六國 | | 304年-439年 |
| 南北朝 | 南朝 | 宋 | 420年-479年 |
| | | 齊 | 479年-502年 |
| | | 梁 | 502年-557年 |
| | | 陳 | 557年-589年 |
| | 北朝 | 北魏 | 386年-534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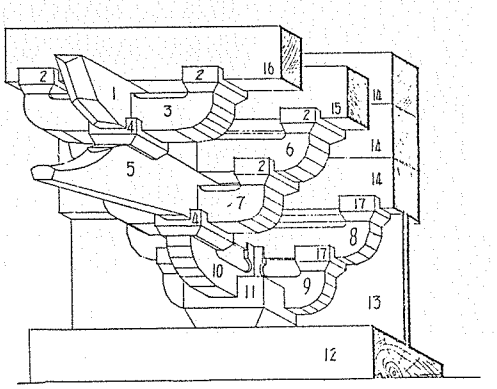
| | | | |
|---|---|---|---|
| 南北朝 | 北朝 | 東魏 | 534年-550年 |
| | | 西魏 | 535年-557年 |
| | | 北齊 | 550年-577年 |
| | | 北周 | 557年-581年 |
| 隨 | | | 581年-618年 |
| 唐 | | | 618年-907年 |
| 五代十國 | 後梁 | | 907年-923年 |
| | 後唐 | | 923年-936年 |
| | 後晉 | | 936年-947年 |
| | 後漢 | | 947年-950年 |
| | 後周 | | 951年-960年 |
| | 十國 | | 902年-979年 |
| 宋 | 北宋 | | 960年-1127年 |
| | 南宋 | | 1127年-1279年 |
| 遼 | | | 916年-1125年 |
| 西 夏 | | | 1038年-1227年 |
| 金 | | | 1115年-1234年 |
| 元 | | | 1271年 -1368 年 |
| 明 | | | 1368年-1644年 |
| 淸 | | | 1644年-1911年 |
| 民 國 | | | 1912年- |

**＊宋式, 淸式斗拱部分名稱圖**

송식(宋式)
1. 사두(耍頭)
2. 산두(散斗)
3. 영공(令拱)
4. 교호두(交互斗)
5. 하앙(下昂)
6. 만공(慢拱)
7. 과자공(瓜子拱)
8. 만공(慢拱)
9. 이도공(泥道拱)
10. 화공(華拱)
11. 노두(櫨斗)
12. 보백방(普栢方)
13. 공안벽(拱眼壁)
14. 주두방(柱頭方)
15. 나한방(羅漢方)
16. 요첨방(橑檐方)
17. 산두(散斗)
18. 제심두(齊心斗)
19. 화두자(華頭子)



청식(淸式)
1. 책마두(昨螞頭)
2. 참재승(參才升)
3. 외예상공(外拽廂拱)
4. 습팔두(拾捌斗)
5. 앙(昂)
6. 외예만공(外拽瓜拱)
7. 외예과공(外 瓜拱)
8. 정심만공(正心萬拱)
9. 정심과공(正心瓜拱)
10. 교(翹)
11. 좌두(坐斗)
12. 평판방(平板方)
13. 점공판(墊拱板)
14. 정심방(正心方)
15. 외예방(外拽方)
16. 조첨방(挑檐方)
17. 조승자(槽升子)



## 서 언

우리가 야외에서 문물조사(文物調査)를 할 때, 종종 많은 고대건축을 접하게 된다. 이 때 그러한 고대건축들이 역사적인 문물가치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연대(年代)를 감정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적인 작업이다. 하나의 고대건축은 그 연대를 확정지어야지만 비로소 일정한 역사 시기에 올려 놓고서 연구를 할 수가 있으며, 그것이 건축발전사에 있어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 지 파악하여 역사적인 문물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대를 감정하는 것이 고대건축을 연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며, 단지 연대에만 의존하여 그 가치를 결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연대를 판단하는 것은 진일보적인 연구이고 그것의 가치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조건인 것이다.

이 글은 현존하는 각 시대의 건축실물에 의거하여 건축물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시대적인 특징을 종합하였고, 각종 건축부재의 순서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고대건축들은 모두가 창건 이후 후대(後代)의 수선(修繕)과 개건(改建)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분별해 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약간의 조사작업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연대확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소개함으로써 실제로 건축문물을 조사하는데 임하는 사람들에게 참고자료가 되고자 한다.

### 1. 두가지의 조사, 두가지의 비교, 연대의 확정

(1) 두가지의 조사

고대건축의 연대를 감정하려면 먼저 두가지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첫째는 건축물의 현존하는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관련이 있는 문자기록을 조사하는 것이다.

① 건축물의 현재 구조(構造) 상황조사

고대건축이 기타 문물과 다른 점은 체형(體形)이 크고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최소한 몇 십 혹은 몇 백개의 건축부재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어떤 것은 몇 천개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다.(벽돌이나 기와, 서까래 등은 그 안에 계산해 넣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건축물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서라도 실지조사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겉에서 보고 안에 들어가서도 보아야 하며, 들보나 지붕 꼭대기에도 올라가 보아야 한다. 건축물에는 겉으로 노출이 안된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벽 속에 있는 기둥, 순(榫)(주1), 묘(卯)(주2) 등의 건축부재들은 파손되어 밖으로 노출된 곳을 통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한번에 볼 수가 없는 것은 해체수리시에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사진이나 그림에만 의존한다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단순히 서적의 기록에만 의존한다면 더더욱 믿을 수가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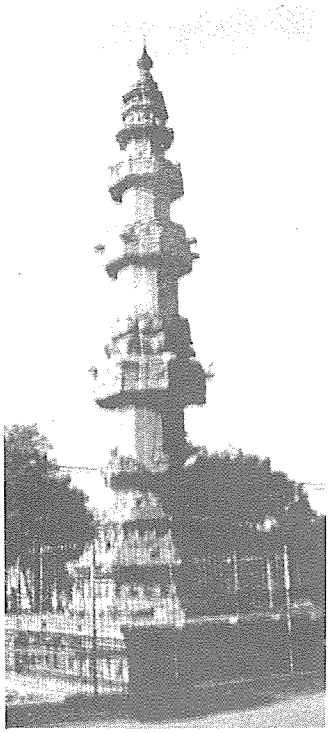
우리가 실지조사를 할 때는 조사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부재의 특징들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목조구조의 건축물은 종종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파손이 되므로 잦은 수리를 필요로 한다. 장식부분에 해당하는 창, 문, 난간, 그리고 질적으로 약한 기와 등은 더욱 잦은 수선과 보수, 교환을 필요로 한다. 또, 어떤 건축물은 전체가 다 궤멸되어 버려 후대에 다시 지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저 유명한 황학루(黃鶴樓)(사진1)와 악양루(岳陽樓)(사진2) 등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 후대의 수리를 거치지 않은 목구조의 건축은 거의 없다. 고대건축을 수리할 때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파손된 건축부재를 새로운

(사진1)황학루전경

(사진2)악양루전경

건축부재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 바꾼 부재는 원래의 것과는 완전히 일치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에는 수리를 했던 당시의 제작 수법을 지니고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수리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조의 외모도 더욱 복잡하게 된다. 그러나 전석건축(塼石建築) 가운데 체형이 비교적 작은 경당(經幢)(사진3)과 소형탑(小型塔) 처럼 원래의 부재를 그대로 보존해 온 것도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대건축의 보존상황은 매우 복잡한 것이다.

(주1) 순 : 나무를 이을 때 한쪽 끝을 다른 쪽 구멍에 맞추기 위하여 그 몸체 보다 얼마간을 가늘게 만든 부분으로 우리말로는 장부라고 한다.



(사진3)경당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연대를 감정하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의 건축물에 현존하는 주체적인 구조로서 주요한 근거를 삼고 일정한 문헌자료로서 방증을 삼아야 하며, 개별적인 건축부재나 부속예술품으로서 주요한 근거를 삼을 수는 절대로 없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목조구조는 현존하는 양가구조(梁架構造)를 주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건축구조는 응당히 구조양식(조각, 벽돌의 쌓는 방법, 사용된 재료의 규격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주요 근거를 삼는다. 나머지 다른 것들, 예를들면 장식(裝飾), 소상(塑像), 채화(彩畵), 가구(家具), 기와 등은 단지 보조근거로 삼을 수 밖에 없다.

조사를 할 때는 다음의 몇가지 점에 유의를 해야한다.

(가) 양가구조는 건축물의 조성주체로서 연대감정의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자세히 조사하여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문자와 그림) 기록의 중점은 평면의 기둥배열방식, 보와 도리의 단면비례(斷面比例), 내외첨(內外檐), 두공(斗拱)의 응용상태에 있다. 만일 시대가 다르고 풍격(風格)이 서로 다른 건축재료가 있다면 주의하여 분리, 기록해야 하며 마지막에는 조사후의 초보적인 결론을 써야만 한다.

(나) 두공의 구조는 목조구조 건축에서 가장 분명한 변화를 보이는 부분의 하나로서 동일한 시대라 하더라도 초기, 중기, 말기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연대를 감정할 때는 이 점을 특히 중요시 해야 한다. 두공은 작은 부재로서 구성이 되는데 특히 외첨두공(外檐斗拱)은 처마 밑에 위치하므로 가장 쉽게 파괴되고 교체된다. 따라서 조사시에는 너무 많다고 해서 일부만을 볼 수는 없으며 전체적으로 모두 관찰을 해야 한다. 또한, 두공의 양식(樣式)과 대소비례(大小比例)의 분포상황 및 사용된 재료의 크기에서부터 공(拱), 앙(昂), 사두(耍頭) 등에 이르는 세부적인 수법에까지 주의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두공에 딸린 구조와 예술장식에 대해서도 응당히 기록을 해야 한다. 후대(後代)에 바뀐 재료가 보인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후대에 바꾼 것이라고 해도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때로는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다) 전석구조의 건축물은 먼저 그 전체적인 외형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예를들면 탑의 윤곽선과 교공(橋拱)의 양식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세부조각, 구조방법, 재료의 규격 등을 세밀히 관찰,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련된 문자기록을 찾아서 조사한다.

고대건축에 관련된 문자기록자료는 대개 세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금석문자(金石文字), 제기(題記), 고대문헌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고대문헌기록은 사전에 먼저 조사를 끝낼 수가 있고 금석문자와 제기 등은 반드시 실지조사 중에 수리해야 한다.

(가) 금석자료 :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석비(石碑), 경당(經幢), 공기(供記) 등의 위에 새겨진 글자이다. 봉건사회에서 교량을 수리하고 길을 보수하거나 묘우(廟宇)를 중수하는 일의 주도자는 모두가 당시의 통치계급으로서 그들은 언제나 이러한 기회를 빌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날리며 이익을 취하였다. 궁전을 지으면 기록을 했고 묘우와 교량을 건설하면 비를 세웠다. 이러한 비각의 위에는 수축과정(修築過程)과 수축일자(修築日字)가 적혀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서 수축한 시기 및 수축과정과 관련이 있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금석자료를 조사할 때에는 비문을 모두 기록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요점만을 골라서 기록할 수가 있다. 기록시에는 다음의 두가지 점에 유의를 해야 한다.

첫째, 어떤 건축군(建築群) 및 그 군체를 이루는 개별건축의 역사연혁, 정확한 명칭, 역대 흥폐(興廢)의 변화상황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둘째, 요점을 깊이 파고 들어야 한다. 예를들어 여러차례의 수리를 거친 상황하에서는 단지 몇년 몇월 파손된 것을 보수하고 썩은 것을 교환하였다는 관식(官式)의 문장만을 보아서는 안되며 중요한 것은 그 수리의 범위와 정도, 공사기간, 비용, 수리를 맡은 인원 등이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비의 앞면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의 뒷면을 보아야 하며, 때로는 실물과 대조를 해 보아야 한다. 비를 볼 때도 단지 규모가 큰 것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주관한 사람이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비를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록된 내용이 반드시 유용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비문은 종종 과장된 것으로 그 진실성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속기 쉽다.

(나) 제기 : 고대건축 중의 제기는 세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건물을 지을 때 보, 기둥, 들보 위에 직접 쓴 문자로서 이런 종류의 제기는 일반적으로 볼 때 임의로 조작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그 건축물의 구체적인 연대를 확정짓는 근거가 된다. 두번째 종류는 목패(木牌)에 써서 보나 들보 위에 못으로 박아 걸은 것으로 신빙성은 그다지 크지 못하다. 왜냐하면 목패는 수시로 끌어내서 새로 바꾼 건축재료 위에 다시 박을 수 있기 때문으로 심지어 어떤 건축물의 경우에는 십여개의 목패가 있는 것도 있다. 세번째로는 나그네가 쓴 제기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나그네의 제기는 그들이 거짓으로 옛 사람을 사칭하는 일이 드물므로 연대의 감정에서 비교적 믿을 만한 근거이다. 오늘날 우리는 작업자의 과학적인 조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문물건축 위에 글자를 써 붙이는 행위를 반대한다. 그러나 고대건축에는 과학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나그네의 제기는 연대의 감정에서 귀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다) 고대의 문헌 : 자주 이용이 되는 것은 각종의 지서(志書)로서 전국적인 성격의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주3), 각 성의 성지(省志), 현지(縣志), 사지(寺志) 같은 것 등이다. 이 밖에도 기록문, 유람기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기록들은 진실로 믿을 만한 것이지만 상당수가 필묵(筆墨)의 장난으로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2) 두가지의 비교

"두가지의 조사"를 거쳐서 전체적인 자료가 얻어지면 곧 바로 "두가지의 비교"를 진행할 수가 있다. 첫째, 현존하는 구조와 이미 연대를 알고 있는 건축물 혹은 "법식(法式)"과 서로 비교를 한다. 둘째, 현존하는 문헌자료와 구조를 서로 비교한다.

① 현존하는 구조와 이미 연대를 알고 있는 건축물의 법식비교

이미 연대를 알고 있는 건축물이나 법식과 비교를 하는 작업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현존하는 구조의 조사시에 이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험이 아주 없거나 초보자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일의 순서에 의거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 왜냐하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머리 속에 각 시기의 중요한 건축물의 형상과 특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이고 한번 대하기만 하면 곧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건축물과 수많은 법식의 규정을 연상해냄으로써, 건축물의 조사시에 한편으로는 구조양식과 특징을 기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타 건축물과 동일한 부분을 비교하게 됨으로써 작업의 속도는 비교적 빨라지게 된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세히 기록을 한 이후에 다시 하나씩 하나씩 서로를 비교하여야 한다. 현장에는 많은 양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갈 수가 없으므로 조사가 끝나고 돌아온 이후 그림과 사진을 대조해 보면서 어느 부분이 동일하고 어느 부분이 서로 다른 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돌아온 이후에도 자료를 신중히 대조하여 그 정확성을 증명한다. 서로 간의 비교를 할 때에도 큰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한다. 우선 전체적인 풍격, 또는 주체적인 구조, 그리고 나서 다시 세부적인 특징을 비교한다. 만일 처음부터 세부적인 특징의 비교에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면 복잡하게 되기 쉽고, 요점을 잡아낼 수가 없으며, 착각이 생기기 쉽다. 서로 비교를 한 이후에는 한가지씩 분리하여 기록을 하고, 어느 부분이 어느 시기의 구조에 속하며, 그 중에서 어느 것들이 후대에 만들어져 교체가 되었는지, 교체가 된 시기는 언제인지 등등을 철저히 기록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건축물이나 법식과 비교를 할 때는 어떤 한가지 단서로서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예를들어 당대(唐代)의 건축 중에는 주두(柱頭)의 난액(闌額)이 각주(角柱)에서 기둥의 안에 끼어져 있어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한 것이 있다. 당대 이후에는 이러한 수법이 확실히 드물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이런 종류의 수법이 보이기만 하면 모두 당대의 건축이라고 확정을 짓는다. 그러나 실제로 청대의 건축물 중에도 난액이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않은 것이 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사공(斜拱)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요대(遼代), 금대(金代), 원대(元代)의 특징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청대에도 여전히 이를 답습하여 여러 곳에서 사공을 사용하였으므로 사공을 보기만 하면 곧 바로 요, 금, 원대의 건축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발상인 것이다.

② 현존하는 구조와 문헌자료의 비교

여기에는 작업방법 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인식(思想認識)의 문제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것이라고 단정짓고, 가장 오래된 기록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조만을 찾아다니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조와 문헌이 종종 서로 어긋나 진일보된 연구로 하여금 과학적인 근거를 잃게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건축물을 후대에 수리할 때 교환했던 부재를 볼 수 없으므로 후대에 수리가 있었다는 문헌의 기록을 뒤집고 이 건축물이 비교적 이른 연대에 지어졌다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 건축물의 건축연대와 그 가치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있으나 고대건축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건축연대가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1961년 국무원(國務院)에서 공포한 제1차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 (주4)의 명단을 보면 그 명단 안에 있는 77개의 고건축

---

(주2) 묘 : 대문의 장부가 끼어서 돌게 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문동개라고 한다.

(주3) 대청일통지 : 청대의 관방에서 만든 지리총지로서 강희25년(康熙二十五年 : 1686년), 건륭29년(乾隆二十九年 : 1764년), 가경16년(嘉慶十六年 : 1811년)등 3번에 걸쳐 편찬되었다. 내용이 풍부하고 고증이 정밀하며 비교적 완벽한 전국성의 지리지로서 중국역사지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서적의 하나이다.

(주4)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 중국은 1961년, 1982년, 1988년 등 세차례에 걸쳐서 전국의 500여 곳에 있는 주요 문물을 지정하여 보호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유형과 소재지에 의한 분포는 다음과 같다.

| 類型 / 行政區域 | 革命遺址及革命紀念物 | | | | 石窟寺 | | | | 古建築及歷史記念建築物 | | | | 石刻及基它 | | | | 古遺址 | | | | 古墓葬 | | | | 小計 |
|---|---|---|---|---|---|---|---|---|---|---|---|---|---|---|---|---|---|---|---|---|---|---|---|---|---|
| | 一 | 二 | 三 | 計 | 一 | 二 | 三 | 計 | 一 | 二 | 三 | 計 | 一 | 二 | 三 | 計 | 一 | 二 | 三 | 計 | 一 | 二 | 三 | 計 | |
| 廣東省 | 5 | 1 | 5 | 11 | | | | | 1 | | 4 | 5 | | | 1 | 1 | | | | | | | | | 17 |
| 廣西壯族自治區 | 1 | | 1 | 2 | | | | | | 2 | 2 | 4 | | | | | | | | | | | | | 6 |
| 福建省 | 1 | | 3 | 4 | | | | | 2 | 2 | 6 | 10 | | | 2 | 2 | | | 1 | 1 | | 1 | 1 | 2 | 19 |
| 雲南省 | | | 2 | 2 | 1 | | | 1 | 1 | 1 | 3 | 5 | 3 | 1 | 2 | 6 | 1 | 1 | 1 | 3 | | | | | 17 |
| 貴州省 | 1 | | | 1 | | | | | | | 4 | 4 | | | | | | | 1 | 1 | | 1 | 1 | 2 | 8 |
| 浙江省 | | | 4 | 4 | | 1 | | 1 | 2 | 1 | 7 | 10 | | | | | | 1 | 2 | 3 | 1 | | | 1 | 19 |
| 江蘇省 | 2① | 1 | 3 | 6 | | | 1 | 1 | 3 | 2 | 8 | 13 | 2 | | 4 | 6 | | | 1 | 1 | 1 | | 1 | 2 | 29 |
| 江西省 | 3 | 1 | 1 | 5 | | | 1 | 1 | | | 4 | 4 | | | | | | 1 | | 1 | | | | | 11 |
| 安徽省 | 1 | | | 1 | | | | | | | 6 | 6 | | | | | | 1 | 1 | 2 | | | | | 9 |
| 湖北省 | 1 | 1 | 3 | 5 | | | | | 1 | 2 | 2 | 5 | | | 1 | 1 | 1 | 1 | 2 | 4 | | 1 | 4 | 5 | 20 |
| 湖南省 | 2 | | 4 | 6 | | | | | | | 2 | 2 | 1 | 1 | 1 | 3 | | | 1 | 1 | | | | | 12 |
| 四川省 | 2 | | 3 | 5 | 4 | 1 | 2 | 7 | 6 | 1 | 7 | 14 | 1 | | 1 | 2 | | | 2 | 2 | 1 | | 2 | 3 | 33 |
| 山東省 | | | 2 | 2 | | | 2 | 2 | 4 | 2 | 7 | 13 | | | 2 | 2 | 2 | 1 | 1 | 4 | 1 | | 2 | 3 | 26 |
| 河北省 | 1 | 1 | 1 | 3 | 1 | | | 1 | 14 | 1 | 7 | 22 | 1 | | | 1 | 2 | | 4 | 6 | 3 | | 2 | 5 | 38 |
| 河南省 | | | 2 | 2 | 1 | 1 | | 2 | 7 | 1 | 3 | 11 | | | | | 5 | | 6 | 11 | | 1 | 3 | 4 | 30 |
| 山西省 | 3 | 1 | | 4 | 1 | | | 1 | 8 | 3 | 12 | 23 | | | | | 2 | | 4 | 6 | | | 2 | 2 | 36 |
| 陳西省 | 1 | 1 | 2 | 4 | | | 2 | 2 | 5 | | 3 | 8 | 2 | | | 2 | 5 | 2 | 3 | 10 | 7 | 1 | 3 | 11 | 37 |
| 甘簫省 | | | | | 4 | | 2 | 6 | 1 | 1 | | 2 | 1 | | | 1 | | | 3 | 3 | | | | | 12 |
| 寧夏回族自治區 | | | | | | 1 | | 1 | 1 | | 3 | 4 | | | | | | | 1 | 1 | | | 1 | 1 | 7 |
| 遼寧省 | 1 | | 1 | 2 | | | 1 | 1 | 2 | | 7 | 9 | | | | | | | 3 | 3 | 1 | 1 | 2 | 4 | 19 |
| 吉林省 | | | | | | | | | | | 1 | 1 | | | 1 | 1 | | 1 | | 1 | 2 | | 1 | 3 | 6 |
| 黑龍江省 | | | | | | | | | | | | | | | 1 | 1 | 1 | 1 | 2 | 4 | | | | | 5 |
| 內蒙古自治區 | | | | | | | | | | 1 | 1 | 2 | | | | | 2 | | 4 | 6 | | 1 | 1 | 2 | 10 |
| 新疆維吾爾族自治區 | | | | | 2 | 1 | | 3 | | | 1 | 1 | | | | | 2 | | 2 | 4 | | | 2 | 2 | 10 |
| 青海省 | | | | | | | | | 1 | 1 | | 2 | | | | | | | 2 | 2 | | | | | 4 |
| 西藏自治區 | 1 | | | 1 | | | | | 6 | 2 | 2 | 10 | | | | | 1 | | | 1 | 1 | | | 1 | 13 |
| 北京市 | 4 | 1 | 1 | 6 | | | | | 12 | 4 | 9 | 25 | | | | | 1 | | 2 | 3 | 1 | | | 1 | 35 |
| 天津市 | | 1 | 2 | 3 | | | | | | | | | | | | | | | | | | | | | 3 |
| 上海市 | 3 | 1 | 1 | 5 | | | | | | 1 | | 1 | | | 1 | 1 | 1 | | | 1 | | | 1 | 1 | 9 |
| 小 計 | 33 | 10 | 41 | 84 | 14 | 5 | 11 | 30 | 77 | 28 | 111 | 216 | 11 | 2 | 17 | 30 | 26 | 10 | 49 | 85 | 19 | 7 | 29 | 55 | 500 |

중에는 한대(漢代)에서부터 청대(淸代)에 이르기까지 건축연대에 관계없이 각 시대의 건축물들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다. 과학적인 태도는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지 전시대(前時代)의 것을 들추어 내는 것도 아니고 후대의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현존하는 구조와 잘 대조하여 그 형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금후의 연구와 보존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작업에서는 어떤 것들이 문헌과 일치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인가를 분명히 분별해내야 하고, 창건당시와 중건시기의 주체구조는 얼마나 존재하며, 보존의 상태는 어느 정도 완전한가 등에 관하여 주관적 편견을 가지고 마음대로 취사선택해서는 절대 안된다. 수많은 고대의 민가(民家)는 이와 관련된 문헌자료가 완전히 결핍되어 있어 더욱 많은 간접자료를 필요로 하며 작업 또한 더욱 복잡하다.

(3) 연대의 확정

위에서 서술한 "두가지의 조사"와 "두가지의 비교"를 거치면 어떤 건축물의 시대 혹은 구체적인 연대는 대부분 확정지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연대를 확정지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고건축의 연대를 단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다섯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첫째, 현존하는 전체의 구조, 평면, 양가(梁架), 두공, 장식, 지붕 등등을 포괄하는 각 부분의 시대가 완전히 일치하거나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또한 문헌자료와도 완전히 부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은 연대의 확정이 가장 쉽다. 명대와 청대의 건축 중에는 비록 이러한 예가 있기는 하지만 수량은 많지 않으며 명대 이전에는 더욱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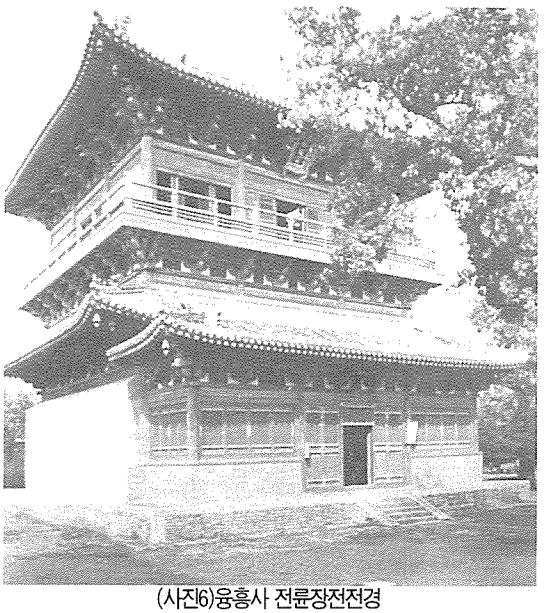
둘째, 주체구조 즉, 목조건축구조의 양가(梁架)와 두공, 전석건축의 주요한 축조방식 등은 모두 건축 당시(창건 또는 재건)의 유물이고 부속부분은 후대의 수리와 교환을 거쳤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건축 당시의 건축물로 인정해야 할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인 산서(山西) 오대산(五臺山)의 남선사 대전(南禪寺大殿)(사진4)은 당나라 건중

(사진4)남선사대전전경

3년(建中三年 : 782年)에 건축되었는데 그것의 양가, 두공 등의 주된 형체와 구조는 모두 건축 당시의 상태대로 남아 있고 전첨과 지붕, 기와 및 채화는 모두 후대의 수리를 거친 것으로 이미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였으나 그것은 여전히 당대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건축구조가 이미 창건 당시의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현존하는 구조상황에 의존하여 연대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광서(廣西) 객현(客縣)의 경략대(經略臺)에 있는 진무각(眞武閣)(사진5)은 문헌 상에는 당대에 창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존하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는 모두가 명대의 양식으로 명대의 중수기록(重修記錄)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건축물은 비록 당대에 창건되었고 청대에도 수리가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명대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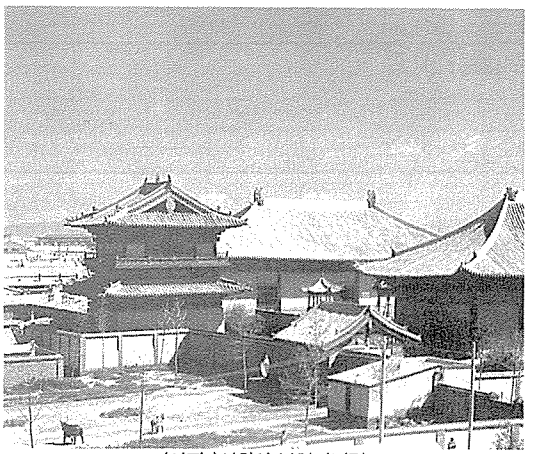
(사진5)경락대 진무각전경



(사진6)융흥사 전륜장전전경

넷째, 단지 주체구조의 일부분 만이 원래의 모습을 바꾸었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건축 당시의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은 가장 복잡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 경우 연대를 확정짓는 관건은 보존되어 남아 있는 주체구조의 상태에 달려있다. 하북(河北) 정정(正定)의 융흥사 전륜장전(隆興寺轉輪藏殿)(사진6)은 북송 시대의 건축물로서 송대와 원대에 대규모의 수리를 거치면서 작은 규모의 건축물로 바뀌었고, 두공과 방자(枋子)도 원래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보와 기둥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북송시대의 건축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산서 직산현(稷山縣)의 대불사(大佛寺)는 본래 금대의 건축물인데 청대에 수리를 하면서 금대의 두공 몇개 만을 남겨 두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의 건축물은 청대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조사를 해 볼 만한 구체적인 문헌이 없어 단지 현존하는 주체구조의 시대적 특성에만 의존하여 연대를 확정지을 수 밖에 없는 경우로서 이같은 상황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종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단지 어느 한 시대에 속하는 건축물이라고 하거나 혹은 어느 시대의 특징을



(사진7)선화사 보현각전경

구비하였다고 말 할 수 밖에 없다. 고대건축의 구체적인 시대 혹은 연대를 확정지으려면 문자로 기록된 증거가 있어야만 정확하고, 그것이 어느 해에 지어진 것인가를 설명하려면 더욱 문자의 기록에 의존해야 한다. 문헌의 기록이 없이 단지 구조양식에만 의존한다면 착각이 일어나기 쉽다. 전 시대의 건축은 후대의 사람들이 모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산서 대동(大同)의 선화사(善化寺)에 있는 보현각(普賢閣)(사진7)은 그 구조의 양식과 수법에 따른다면 응당히 요대의 건축계통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1952년 해체 수리 시에 "진원이년일행조(眞元二年一行造)"라는 제기가 발견됨으로서 금대의 건축임이 판명되었다.

이상은 단지 고대건축의 감정경험과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각각의 건축물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두 다르고, 또한 고정관념에 얽매일 수도 없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고건축의 감정은 과학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실제적인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